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기성용 "유럽 진출 꿈 이뤄 기쁘다"

〈FC 서울·금호고 졸〉

내년 1월 스코틀랜드 셀틱 이적 확정

"유럽 진출 꿈을 이루게 돼 기쁘다. 셀틱 이적에 협조해준 구단에 감사를 드린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유럽으로 나가고 싶다."

영국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인 셀틱FC 입단이 확정된 광주출신의 한국축구대표팀 간판 미드필더 기성용(20·FC 서울)은 28일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통해 내년 1월 셀틱으로 이적하게 된 소감을 짤막하게 전했다.

유럽 무대에 서게 되는 꿈을 이뤘지만 주중에 팀이 컵대회 4강 2차전에서 포항 스틸러스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결승행이 무산됐던 아쉬움이 남아있어서다.

한국축구의 새 희망 기성용은 1989년 광주에서 태어난 축구인 2세. 금호고 축구팀을 이끌며 미드필더 윤정환과 고종수를 키워낸 기영옥 전 감독(현 광양제철고 교사)이 기성용의 아버지다.

순천중앙초등학교 6학년 때 차범근 축구대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은 기성용은 광양제철중 1학년 때 호주로 축구 유학을 떠난 유학파이기도 하다.

16세에 청소년 대표팀을 시작으로 2007년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표를 두루 거친 후 지난해 가을 허정무 감독의 부름을 받아 9월5일 요르단과의 평가전에 출격하며 한국 축구 역사상 16번째 하이틴 A매치 데뷔(19세225일)의 주인공이 됐다.

이후 기성용은 특유의 롱패스와 강력한 슈팅 능력을 앞세워 허정무호의 주축 선수로 성장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굳힌 기성용은 A매치 14경기에 출장해 3골을 사냥하며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탰다.

프로데뷔는 지난 2006년에 했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서울 유니폼을 입은 기성용은 세뇰 귀네슈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2007년 22경기에 출장해 주전으로 활약했다. 지난해에는 27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했다.

약관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기성용은 스코틀랜드에서 활약을 발판삼아 빅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도 도전한다는 각오다.

셀틱은 1888년 창단돼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42차례나 우승한 명문구단. 글래스고우가 연고지로 관중 6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셀틱파크가 홈구장이다.

이적료는 양 구단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200만파운드(한화 40억5천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양용은, 이번에도 '호랑이' 잡을까

PGA 바클레이스 1R 우즈에 1타 뒤져

아시아남자 최초의 메이저골프대회 챔피언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사진)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또 한번 접전을 예고했다.

양용은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장(파71.7천40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번째 대회 바클레이스 1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보기 5개로 맞바꿔 이븐파 71타를 적어내 공동 42위에 자리잡았다.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폴 고이도스, 스티브 마리노(이상 미국) 등이 6언더파 65타를 치며 공동 선두로 치고 나갔지만 아직 대회 초반이라 양용은이 만회할 기회는 남아있다.

양용은은 2주전 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뒤 각종 행사와 인터뷰 요청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했지만 샷 감각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페어웨이 안착률은 71%에 이른 반면 그린 적중률은 50%에 그쳤지만 큰 위기 상황은 없었다. 버디도 많이 잡았지만 아이언샷을 홀에 가까이 붙이지 못해 몇차례 3퍼트로 홀아웃한 것이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한 원인이 됐다.

양용은의 바로 뒷조에서 경기한 우즈는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1언더파 70타로 2인자 필 미켈슨(미국) 등과 함께 공동 27위에 올랐다. 우즈는 티샷과 아이언샷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10개홀에서 1퍼트로 홀아웃하는 정교한 퍼트 실력을 보여줬다.

최경주(39·나이키골프)와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은 2오버파 73타로 공동 73위로 처졌고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4오버파 75타를 치는 바람에 컷 통과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KIA 한기주 내달 1군 합류 가능성

시즌 끝난 후 수술키로

KIA 타이거즈 마무리 한기주의 복귀가 가시화 되고 있다.

한기주는 28일 구리 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군경기에서 3이닝동안 11타자를 상대해 2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40개의 공을 던진 한기주의 직구 구속은 최고 148㎞였다.

앞선 26일 인천 송도구장에서 열린 SK와의 2군 경기에서도 1과 3분의 2이닝동안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던 한기주는 두 경기에서 안정된 피칭을 선보이며 팀 합류 가능성을 높였다.

한기주는 지난달 16일 어깨와 팔꿈치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간 뒤 최근 미국 LA 조브클리닉에 MRI 필름을 보내 팔꿈치 상태에 대한 정밀판독을 의뢰한 바 있다.

조브 클리닉으로부터 '손상 부위가 입단 당시와 변동이 없는 상태로 곧바로 수술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재활 후 상태에 따라 수술을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결과를 받은 한기주는 일단 재활을 진행한 뒤 피칭이 가능하면 시즌이 끝난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8월말을 목표로 복귀를 준비했던 한기주의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엔트리가 확대되는 오는 9월1일 1군에 재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 중계

29일(토)

▲제8회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10 : 00·MBC ESPN) 결승전(14 : 00·MBC ESPN)

▲WKBL총재배 어린이 농구큰잔치 결승(10 : 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SK : 삼성〉(16 : 40·KBS n스포츠) 〈히어로즈 : 롯데〉(16 : 45·SBS스포츠) 〈LG : 한화〉(16 : 45·Xports) 〈KIA : 두산〉(16 : 50·MBC ESPN)

▲09/10 프리미어리그〈첼시 : 번리〉(20 : 30·SBS스포츠)

생활 게시판

부음

▲서성종씨 별세 남수·동수·명수·춘자·경덕씨 부친상=발인 30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2분향소. 062-231-8902.

▲이한규씨 별세 정민·정원·원일·삼육씨 부친상= 발인 30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5분향소. 062-231-8905.

▲염정환씨 별세 창인·경인·현석씨 부친상=발인 29일(토) 학동 금호 장례식장 301호. 062-227 - 4000.

▲한남숙씨 별세 김홍중·남신·화자·영희·미향씨 모친상=발인 2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금식씨 별세 김기선(광주과학기술원)·기홍(의사)·기중(신경대학교)·기현(우석대학교)·기원(군산중앙여고)·기정씨 모친상 이정아(조선대학교)·황지현·이수연·정사희(원광대학교)씨 시모상 노영수(군산중앙고)·이항구(의사)씨 빙모상=발인 2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양금씨 별세 장기연·귀발(농협중앙회 풍향동지점장)·고순·순덕·매실·점순·금옥(서현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김동원·정삼도·김창석·서성필(한국도로공사 팀장)씨 빙모상=발인 29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박정배씨 별세 종대·종주·천만·점수·종님·오님·금숙씨 부친상=발인 29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염정환씨 별세 창인·경인·현석씨 부친상=발인 29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전을순씨 별세 김도형·정금씨 모친상=발인 29일(토) 나라장례식장 402호실. 062-670-4442.